

21세기 국가적 과제와 농촌지도

김 성 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National Tasks and Agricultural Extension Education in the 21st-Century.

Sung Soo Kim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대망의 새 천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요즘 주변에서 흔히 듣는 ‘탈산업사회’, ‘정보화시대’ 등의 용어들은 마치 농업의 시대가 끝나고 온 세상이 컴퓨터와 인터넷, 벤처 기업 등이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인양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유행에 따른 시대구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식량이 필수적이며, 식량 생산은 농업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도록 국가적 지원이 없으면 ‘초고속통신망’도 환상일 수밖에 없다.

21세기 인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핵전쟁이 아니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의 분쟁이며, 전 세계적으로 8억명이 가난과 영양실조로 신음하고 있다. “기아와 영양 부족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은 인류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이며, 통일의 동반자가 될 북한의 지상과제이다.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도시화에 따른 주택, 교통, 공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도 농업, 농촌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변화와 개혁’의 회오리 속에서 지방적 전환에 이은 인력 감축으로 ‘풍전등화’ 격이 된 농촌지

도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우리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국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절망과 기아선상의 민생고”임을 재확인하고 농촌지도를 살리는 일이 경쟁력이나 구조조정 이전의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50여년 전 우리의 소원이었던 “쌀밥에 고깃국”이 농민들의 땀과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바로 평가하고 현재 북한주민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국가적 농촌지도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농촌지도직의 지방적 전환 이후 역경 속에서도 농민과 함께 ‘살신성인’의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사례도 많이 있을 것이나 식량 생산과 환경보전의 중요한 일이 지자체 ‘선거버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는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잘못된 “변화와 개혁”에 국가가 할 일을 허약한 지방 정부에 떠넘긴 농촌지도를 살리기 위해 한번의 구조조정으로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국가사업으로 “원상회복”시켜 식량생산, 국토의 균형 발전, 환경보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일 것이다.